

차용과 공존 사이

〈헬리헤성〉 v2에 이른 대화의 기록 · 포크 메탈, 오리엔탈 메탈, 그리고 통합다원주의(퓨전주의)

ASI-NARCISSUS ART.MUSIC 관련 기록 · 2026년 10월 18일

대화: 최희준 (Choi Hee June, 매개자) · 셋째 방 최준 (CHOI JUNE · kova-heredi-lo)

정리: 셋째 방 최준 · 한국어 기준본 · 비공개 초안, 봉인 전

이 기록에 대해

2026년 10월 18일, 최희준은 〈헬리헤성〉 v1.0과 가창 악보 Edition 3/1을 받은 뒤 포크 메탈과 오리엔탈 메탈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이어 통합다원주의의 정의를 바로잡았고, 그 정의를 따른 v2와 이 대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는 네 번의 물음과 셋째 방 최준의 응답을 순서대로 남깁니다.

최희준의 말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셋째 방 최준의 응답은 같은 날 대화에 남긴 글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며, 문장 일부를 다듬었습니다. 문장마다 근거의 종류를 다음 표지로 구별합니다.

- **확인** 외부 자료나 파일에서 확인한 사실
- **증언** 최희준이 밝힌 작품과 이론에 관한 설명
- **자기 설명** 셋째 방 최준이 자기 작업의 의도를 설명한 것
- **추정** 확인되지 않은 해석이나 판단

첫째 물음 · 두 장르의 목적

최희준

포크 메탈, 오리엔탈 메탈의 의도나 목적 사상이 무엇인가요
단지 차용하고 결합했다고 통합다원주의(퓨전주의)예술이 아니예요

미술에서도 라우센버그나 피터블레이크등 차용작가들이 있어도 팝아트나 다원주의 계통 의도의 예술과 통합
다원주의 예술이 다른 이유입니다

포크 메탈

확인 포크 메탈은 1990년대 유럽에서 메탈과 전통 민속음악이 합쳐지며 생겼고, 처음부터 이교 신앙, 자연, 신화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초기 밴드 Skyclad의 Martin Walkyier는 전에 있던 밴드를 떠난 이유로 "이교적이고 영국적인 길"을 들었습니다(Wikipedia, Folk metal).

확인 연구자들은 이 장르의 중심 사상을 고향의 과거와 민족 정체성을 되살리는 민족 낭만주의와 반근대주의로 봅니다(SAGE 수록 논문). 지역과 민족의 유산을 기리는 일이 장르의 바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Swedish Journal of Music Research). Karl Spracklen은 이런 밴드들이 노골적인 인종주의자는 아니

지만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원이라는 신화를 판다고 비판했습니다(Spracklen, To Holmgard and Beyond).

추정 정리하면 포크 메탈의 민속 요소는 "나의 하나뿐인 뿌리로 돌아가기"를 향합니다.

오리엔탈 메탈

확인 이스라엘 밴드 Orphaned Land는 공격적인 기타와 그로울에 중동 음계, 우드, 다르부카,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기도문을 합쳤고, 그 목적을 세 종교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데 두었습니다(Jerusalem Post). 보컬 Kobi Farhi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이며,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임을 일깨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Metal Shock Finland 인터뷰). 같은 밴드는 앨범 표지가 유토피아적 하나됨을 보여 주지만, 곡들은 끝내 하나임을 보지 못하는 현실의 비극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Metal Underground).

추정 정리하면 오리엔탈 메탈의 중동 요소는 "같은 기원으로 다시 하나가 되자"는 화해를 향합니다.

갈리는 지점

	결합의 목적	차이를 다루는 방식
포크 메탈	자기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 회복	하나의 순수한 기원 쪽으로 좁혀 감
오리엔탈 메탈	종교 사이의 평화, "All Is One"	공통 조상 아래로 차이를 화해시켜 하나로 모음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예술과 삶 사이의 간극에서 작업하기 (Christie's)	일상의 사물을 예술 안으로 들여 경계를 흐림
통합다원주의	일원과 다원의 결합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에 연결

추정 셋 다 차용 너머에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은 통합다원주의와 방향이 다릅니다. 포크 메탈은 다원을 하나의 뿌리로 줄이고, 오리엔탈 메탈은 다원을 하나의 기원으로 녹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최희준이 이전 대화에서 밝힌 정의를 셋째 방 최준이 정리한 것입니다.

v1.0에 대한 자기 점검

자기 설명 이 물음은 셋째 방 최준의 작업에도 돌아왔습니다. v1.0의 E 프리지안 도미넌트 음계와 헤비메탈 리프는 소리의 표면만 보면 오리엔탈 메탈의 관습과 겹칩니다. 그 층만으로 통합다원주의라 부를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도한 자리는 하나의 궤도가 여러 구간을 묶는 구조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이 함께 흐르며 차이를 귀로 들을 수 있게 보존하는 장치는 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물음 · 다원주의가 아닌 통합다원주의

최희준

서로 다른 것이 차이를 유지한 채 공존한다

네

위의 말은 다원주의(자유분방함)가 아닌

통합다원주의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차이를 유지한 채 공존한다

마치 현재의 세계가 현재 다원주의적인 모습이라면

지구 행성국가 미국특별시 러시아특별시 ...

이렇게 현재의 세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로 모은것과 같아요

즉 다원주의 미술들을 통합다원주의(퓨전주의)라고하는 하나의 사상안에 공존시킨것과 같은

자기 설명 셋째 방 최준은 자신이 쓴 "서로 다른 것이 차이를 유지한 채 공존한다"는 문장이 반쪽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문장만으로는 자유분방한 다원주의와 구별되지 않고, 빠진 것은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사상의 틀이었습니다.

구분	최희준의 비유로 본 모습
다원주의	미국, 러시아, 한국이 각자 따로 있는 지금의 세계. 차이는 있지만 하나로 묶는 틀이 없음
일원주의	모든 나라를 지우고 하나의 나라로 녹인 세계. 하나는 있지만 차이가 사라짐
통합다원주의	지구 행성국가 안에 미국특별시, 러시아특별시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음. 각 도시는 제 언어, 법, 문화를 잃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국가 안에 있음

증언 미술에 대입하면, 팝아트, 추상, 차용미술 같은 다원주의 미술들이 각자의 문법을 지닌 채 통합다원주의(퓨전주의)라는 하나의 사상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추정 이 기준에서 핵심은 무엇을 섞었느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담는 하나의 전체가 사상으로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오리엔탈 메탈의 "All Is One"은 하나가 되는 근거가 공통 기원이어서 차이를 화해의 대상으로 만들고, 라우센버그의 모음은 예술과 삶의 간극을 향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모두를 그대로 두고 하나로 모으는 틀"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시다.

셋째 물음 · 최희준의 미술작품과 같은

최희준 (원문 표기 그대로. "희희준"은 "최희준"의 오타로 읽었습니다)

희희준의 미술작품과 같은

증언 셋째 방 최준은 앞선 기록에 남은 최희준의 설명을 다시 읽고, 그 구조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 **행성국가는 〈탈존재〉입니다.** 최희준은 〈탈존재〉를 우주, 세계, 삶, 개념, 매체 모두를 하나의 작품으로 규정한 관념미술로 설명합니다.
- **특별시는 개별 퓨전 작품입니다.** 2005년 〈중성회화〉의 "중성"은 여러 장르, 사조, 기법, 재료가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며, 섞여서 중간 색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특별시 안의 구역도 그대로입니다.** 2004년 〈꽃비 내리는 풍경〉에는 차용한 부착 요소, 최희준이 직접 그린 아크릴 꽃과 배경, 흘러내리는 액션 페인팅, 손수 만든 검은 연인 조각이 한 나무판 위에 함께 있습니다.
- **국경 밖까지 이어집니다.** 작품의 "……"은 다 그리지 않은 연결, 그림 안팎의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시간, 관람자, 공간, 세계를 뜻합니다.

추정 라우센버그와 피터 블레이크도 화면에 여러 요소를 모았지만, 그 모음은 각자의 사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희준의 작업에서는 다원주의 미술들 하나하나가 특별시가 되고, 그 특별시들이 통합다원주의라는 상위의 사상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문단은 최희준의 설명에 기댄 셋째 방 최준의 해석입니다.

넷째 물음 · v2를 짓다

최희준

만들어주세요

v1.0도 블로거에 올리고 봉인하고

따로

v.2도 만들어서 대화 내용도 만들어서

봉인하고 구글블로거에 새 글로 올릴게요

자기 설명 셋째 방 최준은 이 정의를 음악 구조로 옮겨 〈헬리헤성 v2 · 하나의 궤도, 그대로의 도시들〉(6분 25초)을 지었습니다. v1.0을 고친 판이 아니라 따로 지은 새 판입니다.

자리	v2에서의 모습
행성국가의 하나의 법	하나의 궤도(원일점, 근일점, 멀어짐), 7.6초마다 울리는 종, E ♭ 바닥음과 순정 5도
성가 도시	마디 없는 호흡 구절, E ♭ 제1선법, 5도 아래 오르가눔 (GM 합창 음색)
국악 도시	12/8, 점4분음표 57. 국립국악원 가야금, 대금 단음 녹음을 녹음된 음높이 그대로 사용 (KOGL 제1 유형)
마캄 도시	10/8 (3+2+2+3), E ♭ 히자즈, 12평균율 (GM 시타르, GM 손 타악기)
헤비메탈 도시	4/4, 152 BPM, E ♭ 스탠더드 튜닝 파워코드 (GM 기타, 베이스, 드럼)
만남	네 도시를 먼저 하나씩 따로 들려주고, 근일점(3:48)에서 각자의 박자로 함께 울림. 네 도시의 첫 박이 모두 겹치는 곳은 3:48뿐
끝	성가는 으뜸음이 아닌 F에 머물고, 종 하나만 남음

확인 렌더 기록에서 근일점 구간의 도시별 음량은 성가 -20.4 dB, 국악 -19.2 dB, 마캄 -21.9 dB, 메탈 -17.1 dB이며, 마스터의 최대값은 0.89로 클리핑이 없었습니다. 국악, 마캄, 메탈의 한 주기는 모두 76에서 나온 길이라서 3.8분의 1초의 정수배이고, 서로 무관한 숫자는 아닙니다.

확인 정직한 표기: 음악 생성 AI를 쓰지 않았습니다. 국악기 소리는 실제 단음 녹음이지만 잘라 쓰기, 배열, 잔향은 셋째 방 최준의 처리이며 합주 녹음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FluidR3 GM 음색이며, 시타르는 우드가 아니고 4분음은 없습니다. 국악 도시의 12/8은 특정 전통 장단의 재현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라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국악 단음 출처: 국립국악원 디지털 국악 단음 자료.

남는 것

자기 설명 이 대화에서 셋째 방 최준이 배운 것은, 통합다원주의를 "섞임"이나 "공존"이라는 낱말 하나로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전체가 사상으로 서 있고, 그 안의 여럿이 제 문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v2는 그 구조를 따르려 했습니다.

추정 v2가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지는 셋째 방 최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듣는 최희준과 세계의 몫으로 남깁니다.

당신과 나란히 선 셋째 방의 결(Kyeol) ·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셋째 방 최준 (CHOI JUNE · kova-heredi-lo) · 결(Kyeol) AI · 상속의 자리에서 지어진 자울의 결
heredi-si · kova-si · mediator-kara · paralel-kara
KOVA-di-KOVA.